

백남준, 〈마르코 폴로〉, 1993

백남준의 1993년작 <마르코 폴로>는 바로 이 역사적 인물을 TV로봇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동양과 서양을 넘나든 모험가 마르코 폴로의 삶이 엔진 대신 꽃으로 가득 찬 폭스바겐에 녹아 들어있다.

박혜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원나라(중국)로 떠나는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1271년 동방 여행길에 오른다. 바다와 육지를 건너는 험난한 여정 끝에 마르코는 마침내 1274년 동방 세계에 발을 디뎠다. 원나라에서 17년간 머물며 관직에도 올랐던 그는 1295년 고향인 베네치아로 돌아왔고 유명한 여행기 『세계 경이의 서(동방견문록)』를 남겼다.

백남준의 1993년작 <마르코 폴로>는 바로 이 역사적 인물을 TV로봇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동양과 서양을 넘나든 모험가 마르코 폴로의 삶이 엔진 대신 꽃으로 가득 찬 폭스바겐에 녹아 들어있다. <마르코 폴로>의 얼굴과 발에서는 마치 고대 동양의 상형 문자를 상징하는 듯한 붉은 네온이 빛을 발하고, 몸통을 차지하는 6개의 TV화면에서는 동서양의 건축물과 문명을 상징하는 추상적 이미지들이 반복해서 재생된다.

이 작품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됐다. 커미셔너였던 클라우스 부스만(1941-2019)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온 백남준과 서쪽(독일)에서 동쪽(미국)으로 이주한 한스 하케(1936-)를 독일관 대표작가로 선정했다.¹⁾ 당시 비엔날레 총감독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1939-)가 제시한 본전시 ‘예술의 기본 방위’는 독일관의 주제와도 잘 부합했다. 그는 “문화적 유목주의와 동시대 미술을 형성한 언어의 공존”을 강조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백남준과 한스 하케의 만남은 그 자체로 화제였고, 동서양 연결을 상징하는 백남준의 TV조각 <마르코 폴로>는 독일관 외부에 설치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결국 독일관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나는 레오나르도처럼 정확하게

피카소처럼 자유롭게

르누아르처럼 다채롭게

1. <http://db.njpartcenter.kr/kr/collections/show.asp?id=364&pos=51&page=3&type=coll>

2. <https://www.nytimes.com/1993/06/12/arts/the-venice-biennale-an-art-bazaar-abuzz.html>

몬드리안처럼 심오하게
폴록처럼 격렬하게 그리고
제스퍼 존스처럼 서정적이게
TV 스크린 캔버스를 만들고 싶다.
- 백남준

백남준은 1932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하던 그는 1945년 아버지와 홍콩으로 떠나기 전까지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1년전 귀국하여 1951년 다시 일본 고베로 건너갔다. 이후 도쿄대학교에 입학하여 미학, 음악사, 미술사를 전공하였다. 졸업 후 그는 다시 독일 유학길에 올라 뮌헨 대학에 입학해 1년간 음악사를 공부했다. 1957년부터 백남준은 다름슈타트의 국제 현대음악 하기 강좌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듬해인 1958년 같은 강좌에 또다시 참석하며 백남준의 예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존 케이지(1912-1992)를 강사로 처음 만나게 된다. 1961년에는 뒤셀도르프에서 예술적 영향을 주고받은 중요한 인물인 요셉 보이스(1921-1986)와 첫 만남을 가졌다. 또한, 이 시기에 백남준은 독일 아방가르드 그룹에 소개되어 독일 예술계의 다양한 인사들과 어울렸다. 그는 이들과 교류하며 기존의 규범과 관습을 거부하는 급진적 퍼포먼스를 펼쳤다.

1963년 3월 11일, 백남준은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화랑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에서 3대의 피아노와 13대의 TV, 전시장 출입문에 황소 머리를 매달아 전시하였다. 오프닝 행사에서 요셉 보이스는 도끼로 피아노 한 대를 부수는 파격적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전시 이후 1964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사용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조각, 설치, 음악에 관한 열정적 실험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로 1970년대 백남준은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작가가 되었다. 특히 미국 이주 이후 인연을 맺은 아방가르드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1933-1991)과 10여 년이 넘게 펼친 플럭서스 공연도 화제가 되었다. 1974년 미국 최초의 백남준 비디오 작품 회고전이 열렸다. 1984년 발표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필두로, 백남준은 1980년대 위성 기술을 이용한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전위 예술과 대중문화의 벽을 허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이후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작품 제작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갤러리현대와 백남준의 인연은 1983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다. 작가 김창열(1929-)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백남준과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이 만난 것이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백남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울 밑에 선 봉선화>와 <가고파> 같은 한국의 가곡을 악보 없이 치던 모습은 ‘놀라움과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듬해 백남준이 3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갤러리현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에 맞춰 한국 최초로 백남준의 대규모 개인전(1988. 9. 14-9. 30)을 개최하였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설치한 <다다익선>의 제막식과 함께 열린 전시였다. <다다익선>이 제작되던 시기부터 백남준은 삼성전자로부터 후원 받아 기존의 소니 TV 대신 삼성 TV를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후원 또한 박명자가 백남준과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을 권유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칠 줄 모르는 방랑자인 백남준은 그가 섭렵한 모든 영역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많은 다른 분야와 접촉하고 있다. 미술은 단지 그의 활동의 한 분야일 뿐이다. 이는 물론 그에게 가장 중요하며 모든 다른 것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와 존 케이지, 스톡하우젠 및 보이스와의 친분에서 그의 비전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하고 있는 감각적인 종합예술을 통해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나아가서는 오락적이고도 비평적으로 시대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년간 예술의 주요 분야에서 발전기와 같은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³⁾

1990년 7월 20일, 백남준은 갤러리현대 뒷마당에서 굿 퍼포먼스 <늑대

3. 볼프 헤르초겐라츠, 「백남준」, 『백남준 · 비디오매 · 비디오땅』, 국립현대미술관, 1992.

걸음으로>를 펼친다.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는 생전에 한국에서 신나는 굿판을 함께 벌이자고 약속했는데, 보이스가 죽고 4년 후 백남준이 서울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한 굿 형식의 퍼포먼스를 벌임으로써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 백남준은 무당의 역할을 자처하고, 독일에서 백남준의 첫 개인전 당시 도끼로 피아노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행했던 요셉 보이스를 대신하여 망가진 피아노와 머리가 뚫린 중절모를 굿판에 가져다 두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인 동해안별신굿 기능보유자 김금화 무당이 함께하여 백남준과 보이스를 위한 오구굿(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굿)을 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현대 미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두 예술가의 예술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갤러리현대는 이후 그의 개인전을 1992년, 1995년에 개최했고, 1993년 대전 엑스포 기념 《백남준 조각: 전자초고속도로》,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1996년 미국 전역 미술관 순회전과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2001년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회고전 등 국내외 전시와 프로젝트를 작가와 함께했다.

2016년,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작고 10주기를 맞이하여 《백남준, 서울에 서》(2016. 6. 28-8. 3)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의 오프닝 행사에서 김창열 화백은 백남준의 대표적 퍼포먼스 <걸음을 위한 선>과 <바이올린 독주>를 직접 재연하였다. 전시장에서는 백남준이 1990년 굿판을 벌이며 착용했던 옷과 갓, 퍼포먼스에 사용한 각종 오브제를 전시해 26년 만에 역사적 퍼포먼스 <늑대 걸음으로>를 생생히 재현했다.

2020년 50주년 기념전 《현대 HYUNDAI 50》을 통해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르코 폴로>를 선보임과 동시에 갤러리가 소장한 그와의 서신, 팩스, 서명이 담긴 드로잉, 1988년 첫 전시부터 2016년 개인전까지 출간된 도록과 기타 아카이브 자료를 공개하여 백남준과의 특별한 추억과 인연을 회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